

하나님을 즐거워 하라

1.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2.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교회
3. 청소년 사역에 집중하는 교회
4. 주님의교회들을 번식하는 교회

통권 _ 제 185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06년 9월 10일

함즐함울

www.pcltv.org

2006단기선교보고대회

단기선교를 통해 주님의 선교명령의 기초 반석 세워



지난 주일 3부 예배 중에는 2006여름단기선교보고 대회가 있었다. 주일설교 후 선교사역본부장인 한윤경 장로의 종합보고가 있었다. 한장로는 청소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160여명이 참가한 총 8개팀의 선교사역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이들 선교팀은 준비기도회부터 시작하여 캄보디아, 중국, 몽골 등지에서 복음전파, 우물파기, 의료선교, 주일학교, 비전트립의 사역을 감당했다. 이와 같은 선교사역의 집중으로 현지에는 복음의 열매를 심었고,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

한장로의 선교보고 후에는 단기선교팀에 참석한 모든 대원들이 예배실의 강단에 올라와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노래를 불렀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역시 보내는 선교사로서 마음을 함께 했다.

또한 14부예배 중에는 단기선교보고영상이 상영되었으며, 1층 로비 및 교회 앞뜰에서는 사진전시회가 열렸다.

단기라는 극히 제한적인 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선교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주님의 선교명령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수행하

는 기초적인 반석이 된다.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선교기지를 건설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활발한 선교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온성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다.

가정사역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들의 큰모임



지난 9월2일 (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들 (행가람), 제3회 큰 모임

이 경기도 진재골 사랑의 집에서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32쌍의 부부 (64명)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행가람과 함께 하는 음악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였던 이번 모임은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지치고 힘들었던 형제, 자매들의 몸과 마음의 재충전을 위하여 준비한 작은 잔치였다.

(2면에서 계속)



청년새벽부흥 1주년 2면

9월 4일 새벽부흥예배 1주년을 기념하여 축하의 시간을 가졌다.

예배의 현장

2면

청년부 중국 단기 선교

3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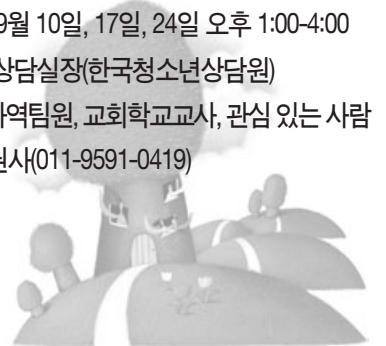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4면

꿈나무 사역팀

청소년 상담 세미나

일시 : 2006년 9월 10일, 17일, 24일 오후 1:00-4:00
강사 : 금명자 상담실장(한국청소년상담원)
대상 : 꿈나무사역팀원, 교회학교교사, 관심 있는 사람
문의 : 고유자권사(011-9591-0419)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안내

일시 : 2006년 9월 14일~ 11월 23일
(매주 목요일 1시~ 5시)

장소 : 정동제일교회 사회교육관 이펜젤라홀
(시청역 덕수궁 뒤)

신청 : 교회사무실(20명 선착순)

교육비: 8만원(주님의 교회 등록교인은 4만원)

문의 : 김양자 장로(017-250-0670)

PTP 2006 가을학기

‘시대를 책임지는 리더십’

(느헤미 강해)

일시 : 9월 9일 ~ 12월 9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 주님의교회 지하 1층 중예배실

특별초청 : 이기복 교수(10월 21일)

김영애 권사(11월 18일)

30p

창교

박/진/희/콘/서트
PARK JIN HEE CONCERT

2006/9/17(주일) 오후4시
주님의교회 대예배실

30p

worship service

“30p”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막힌 담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의 행진이 되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리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1990년, 1995년 두 차례의 열정을 발표하여 활동 하던 창문은 1999년 한 사람의 도움하로 사역이 일시 중단되었습니다. 홀로 남겨진 창문은 “30p”이라는 이름의 젊은 피와 이를 통해 사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날까지 “30p”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2000년 여정 종료 “창문” 작은 창문의 초상, 2001년 “창문” 4대 창문의 사랑, 감사, 기쁨을 주께 드려, “30p” 발표하여 그녀의 노래를 통해 자신의 삶과 고백을 주님께 올려 드리며 주님의 용서로 세상에서 살아 갈 것을 선포하고 있다. 그녀가 30p에 대해 초대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



예배의 현장 : 두려움을 뛰어 넘는 법



9월 6일 수요일예배는 한 달에 한번 씩 진행되는 교육전도사의 설교예배로 드러졌다. 김종원 전도사(소년부)는 시편 27:1~6 말씀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을 뛰어 넘는 방법에 대한 설교를 하였다. 우리의 인생은 남이 대신 하여 살아 줄 수 없으며 살아가는데

생기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안에서 극복 하셔야 한다며, 그 방법으로 첫째로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둘째로 주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며 해결책을 기도로 극복 하며 고통도 하나님께 맡기라 하며, 셋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조급함을 가지지 말고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한다고 하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그 순간도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했다.

다빈치 코드 해부

교회는 어떤 진실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반성

8월 13일 오늘예배에서는 정영환 목사의 다빈치 코드 해부하기 강의를 있었다. 소설 다빈치 코드는 전세계적으로 4300만부가 팔렸고 우리나라에서만 300만부 이상이 팔려 저자인 댄 브라운을 많은 돈방석에 앉게 해주었고 영화제작까지 이어진 화제작이다. 다음은 정영환목사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

우리가 영화를 보았는지? 책을 읽었는지? 소문만을 들었는지? 이 다빈치 코드는 “철지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의 이야기라는 전제하에 영화상영을 앞두고 기독교계의 반대 소송 등이 야기되었지만 재판부는 이 영화를 보고 종교적 신념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이 변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판결에 영화상영이 허가 되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소설은 허구일 뿐이지만 성경은 진리이다 라는 점이다. 일점 일획도 변하지 않는 것이 주님의 말씀 즉, 성경이다. 소설 속의 과장과 리얼리티를 통한 논픽션에 흥분하고 기분나빠하기 보다는 다시 한 번 우리의 진리 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성경에 충실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 논쟁을 통해 교회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지 반성을 해야 하며 지금까

지 교회는 일반적이고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는 선입관을 준 것을 인정해야 한다. 대화할 줄 모르는 독선을 버리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재미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다빈치코드의 해부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된다. 사도바울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원했다며 (사도행전 17: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날의 모든 교회도 세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교회로 거듭나야 한다.



오늘 기도



저녁으로 산 내 자녀야... 내가 복음을 두려워 하느니라!

(1면에 이어서)

가정사역팀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이들의 큰모임

접수와 교제를 마치고, 참석한 부부들은 5시부터 정원으로 나아가 김경신 장로의 인도로 지난번에 배웠던 스텝에서 더욱 진보된 차차와 블루스의 기본스텝에 대하여 배운 후, 어려운 수준의 스텝을 돌리고 찍으면서 자연 속에서 부부간에 친밀해 지며 사랑을 확인하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맛난 식사 후 80년대 통기타 가수인 신계행 씨의 대표적인 곡, '가을 사랑'과 신곡 서너 곡을 들었고, 온누리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광재 전도사의 영감과 실력이 조화된 색소폰 연주에 매료되어 더욱 부부가 주님 안에서 친밀해지며 화해하고 용서하는 시간을 가졌다. CD를 사고, 타이틀에 사인도 받고...소녀소녀처럼 아름답



고, 풍성한 라이브음악을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음악여행을 마친 후, 하반기 행가람 소그룹모임에 대한 안내 및 참여하기 원하는 부부들의 신청을 받는 시간도 가졌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부부들이 하반기부터 참석하기를 원한다고 신청했다. 주님의교회 안에서 점차 많은 부부들이 부부와 가정에 대하여 더 깊이 배우고 경험하며 나누고 누리는 것에 관심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년새벽부흥 1주년

하나님과 교제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청년

2005년 9월5일 '청년새벽부흥' 예배가 시작되었다. 청년새벽부흥은 주일을 제외한 6일간 오전6시 15분부터 지하 중강당에서 매일 열리고 있다. 청년새벽부흥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청년들, 방문화를 이기며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청년들, 그리고 새벽의 첫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청년들을 방향성으로 잡고 이어져 왔다.

시작되는 날로부터 1주일 전부터 윤은성목사와 새벽을 섬길 청년 20여명이 함께 새벽부흥예배를 위한 기도를 했다. 윤은성목사는 문봉주 대사의 '새벽형 크리스천'과 '새벽나라 새벽거인'이라는 두 권의 책을 길잡이로 삼고, 20여명의 지체들과 함께 청년새벽부흥 팀을 결성한 것이다.

청년새벽부흥사역팀장과 팀원들이 세워지고, 팀원들은 매일 아침 식사준비와 예배를 위한 준비를 했다. 매일 준비해야 하는 아침식사는 청년새벽부흥에 있어서 매우 힘든 문제였다. 청년지체들이 두 명씩 조를 짜서 김밥, 그리고 빵과 우유 등을 주문하기도 하고, 자원하는 집사님들이 준비하기도 했지만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귀한 성도를 만나게 된다. 정란희집사가 매일같이 아침식사를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섬김이 시작 된 이후로 지금까지 그 은혜는 계속 되고 있다.

2005년 12월26일부터 1월 14일까지 3주간 특별새벽기도가 열렸으며 수많은 청년지체들이 참여하여 함께 기도했다.

2006년 3월 27일부터 3월 29일까지는 새벽형크

리스천의 저자인 문봉주 대사를 초빙하여 특별새벽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라와 사랑과 말씀인 삼위일체 하나님을 함께 묵상했던 귀중한 시간이었다.

2006년 4월10일부터 4월16일까지는 고난주간새벽기도가 진행되었으며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새벽기도 후에는 형제들이 모여서 중보기도와 축구를 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새벽부흥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로 청년들의 육과 영이 모두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9월 4일은 청년새벽부흥 1주년을 기념하여 많은 청년 지체들이 모여 함께 축하를 했다. 이번 1주년을 맞아 주께서 하신 일을 되돌아보게 된다. 그동안의 청년새벽부흥은 셀 수 없는 기도의 응답들과 청년들의 변화로 많은 간증을 체험케 하신 참만한 하나님의 역사이다.

청년새벽부흥사역팀장 남희성

2006 여름/단/기/선/교

“그들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익순 (고등부)

김춘수의 시 ‘꽃’처럼 이 비전 트립 전에 캄보디아는 나에게 무의미한 나라였지만 이번 선교 활동으로 인해 캄보디아는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의미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로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선교 활동을 위해 간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었지만 선교를 간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가는 분들도 모두 좋은 분들 같았습니다.

우리가 첫날 도착하니 캄보디아에서 선교사로 계신 윤구행 목사님께서 마중 나와 계셨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우리는 보트에 타고 거기에는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보트 피플들이 실제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열악한 생활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5평 남짓한 조그만 배 한척 위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화장실도 없었고 부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누런 강물로 밥을 지어먹고 불일도 해결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너무나 편안한 생활을 누리고 살면서도 불평투성인데 말입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것은 마지막 날인 세번째 날에 갔던 현지 교회와 고아원에 갔던 경험입니다. 우리는 3개의 교회와 고아원을 방문했는데 교회들과 고아원은 윤구행 목사의 지원 하에 현지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방문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윤목사님이 처음 왔을 때 캄보디아는

전혀 개발이 되어있지 않은 곳이었다고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시엠립에서 씨스폰까지 자동차를 타고 오는데 무려 펙크가 4번이나 나섰고 무려 8시간이나 걸려서 오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혼자 왔던 길을 우리가 함께 탄 10대의

자동차가 뒤따라오는 것을 보고 감동을 이기지 못해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후 그곳의 몇 개 교회와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그 곳의 교회는 그저 교회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지역의 문화공간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자 그들은 어떻게든 우리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청소년들에 불과했는데 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이든 배우는 데 적극적이었고, 미래의 꿈과 희망을 열심히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몇 주도 안 배운 그들의 영어실력은 마치 한국에서 몇 년을 배운 수준이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국의 50년대를 연상하게 한다고 합니다. 90년에 태어난 나는 한국의 50년대에 살아보지는 못했지만 관광객에게 물려들어 one dollar, one dollar를 외쳐대는 그들, 모든 것이 없고 가난한 캄보디아를 보며 한국의 50년대가 이랬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방 직후 좌우익이 서로 대립하며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했고, 결국 6.25전쟁으로 또 한 번 많은 것을 잃어야 했던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가슴 아픈 역사를 닮은 캄보디아의 운명은 여행 내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Killing Field의 나라 캄보디아는 그들의 비극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볼 수 있었기에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헐벗은 아이들과 고아들, 그리고 고아원보다도 못한 환경에서 차라리 고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철없는 자녀들, 국경을 넘어서 지구라는 커다란 울타리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과 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선교 여행을 계기로 타인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아이들과 어울리며 웃음을 주고받고 우정을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안 다녔더라면 절대 못했을 선교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4박 5일 선교 여행을 무사사고로 무사히 마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함을 알게 해주시고, 가족들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년부 중국단기선교

하나님께서 그 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중국으로의 부르심’ 이것이 내가 속한 청년부 중국팀의 제목이었다. 심양, 지반, 단둥, 연변 지역을 다니며 북한 접경지역과 고구려 유적을 중심으로 돌았던 비전 트립은 실제로는 존 로스, 존 맥킨타이어와 함께 서상륜, 이용찬 등의 인물들이 성경을 한국으로 들여왔던 바이블 로드를 추적하여 따라갔던 길이었다. 선교를 준비하며 개인적으로는 현지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어려움들을 느끼며 선교적 마음을 품기를 원했지만, 마치 관광코스과 같은 일정에 의미 없다 생각하여 포기해 버리고 싶었던 마음도 품었었다. 하지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길 간구하고,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대했던 기도의 응답과 함께 중국으로 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기도의 응답 때문이었을까? 중국 단기 선교의 일정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계획을 실현하고, 체험하는 특별

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특히 압록강변을 따라 1시간동안 배를 타고 가며 보이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을 향해 축복기도를 하였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압록강변에서 실제로 본 북한 사람들은 불행해보이지 않고 평범해 보이는 모습이였다.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은 아니었다. 그들에게는 종교를 믿을 자유가 법적으로 허용되었다. 하지만 믿지 않을 자유 역시 그들에게는 법적으로 존재했다. 때문에 전도하는 일은 믿지 않을 자유를 침범하는 일이었다. 또한 18세 미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종교적 관습도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전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50년이 지난다면 그 땅의 교회는 자연적으로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다. 그곳에 세워진 연변 과학기술대학에서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전도’는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의 시대를 이어갈 청년들을 양

육하고 있었다. 한계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강은 계속 흐르고 있었던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 그 땅에 갔던 나에게 알게 하신 그분의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말씀을 읽으며,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자유’였다. 중국, 북한.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는 그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길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같이 갔던 팀원들 모두 서로가 참고 웃으며 행복한 1주일을 보냈다. 묵묵히 다른 팀원을 챙겨주었던 ‘ㄱ’과 아픈데 티안내려 노력했던 ‘ㄴ’ 모두들 감사하다. 한사람이 힘들 때 삼겹살의 역할을 해준 그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실 일들을 기대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분의 계획 속에서 기도할 것이며, 한명의 일꾼으로 동참하는 한 장의 벽돌이고 싶다.

최현일 (청년부)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1

캄보디아 비전트립 둘째날 (지난 호에 이어서)

둘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식사를 했다. 맛있는 식사를 좋은 곳에서 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했다. 오늘 일정은 앙코르와트를 돌아보며 캄보디아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었다. 해가 많이 들어서 더울 것이라며 아침 일찍부터 출발을 서둘렀다. 아주 귀여운 미니버스를 타고 울퉁불퉁 포장되지 않은 길을 20여분쯤 달려 앙코르와트 입구에 도착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현지인 가이드가 우리를 안내했다. 입구에서 입장권을 정확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었다. 선교사님께 사진을 찍는 이유를 여쭙보고는 조금 부끄러워졌다. 티켓의 유효기간은 1일 단위인데 한국 여행객들이 아침에 표를 사가지고

관광을 하고 오후엔 다른 사람에게 그 티켓을 넘기는 바람에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찍는 것이라고 하셨다.

앙코르와트에 들어가니 엄청난 건물이 눈에 띄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이 건물들이 40년 만에 지은 것이라고 하셨다. 각도에 따라 보면 3개가 있었다가 5개가 되는 신기한 건물이다. 앙코르와트 벽면에 새겨져 있는 조각은 장관이었다. 12-13세기에 전투 장면과 창조신화, 천당과 지옥의 장면이 그려져 있었다.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천 년 전 사람들의 천당과 지옥에 대한 개념은 아주 흥미로운 것이었다.

김현정
(다음호에 계속)

중·고등부 연합 비전트립 2

두 곳의 새 생명 교회 방문 (지난 호에 이어서)



• new life church / 떡달라

마침 교회에서는 시소폰지역 목회자들의 목회자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다. 어떤 교재로, 어떻게 지역 복음화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하는 내용의 목회세미나가 열리는 교회 마당에는 식탁과 의자, 그리고 한켠에 술을 걸고, 불을 때며 점심을 준비하고 있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뜨거운 그 무엇을 느낄 수 있었다. 피 흘린 땅의 회복을 위해, 성전건축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 같이 기도해 달라는 기도제목을 가슴에 담았다.

• new life church / 몽골보레이 mongkolborey

좁다란 길을 한참 가서 마주한 교회는 수로와 논을 경계로 단정하게 서있는 2층의 교회였다. 1층은 벽이 없이 바닥과 기둥으로 되어있고, 2층은 예배당이었다. 그들과 적당한 바람이 머무는 1층은 지역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여름학교가 열리고 있었다. 놀이와 성경공부, 교과학습, 영어학습 등등. 또한, 10대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우리일행을 보기 위해 50여명의 마을아이들이 교회로 모여들어 그야말로 교회는 순

식간에 마을공동체의 중심이 되었다. 한번도 외부인과 영어로 이야기해보지 못해서 그곳 교회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영어로 처음 이야기한다는 16살 소녀 오븐. 하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다고 수줍게 웃으며 약속하는 그녀의 순수에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씌어주었다. 아무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 속에서 캄보디아의 꿈과 희망을 볼 수 있었다. 지역 청년공동체의 복음화, 번식교회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약속을 뒤로하고 숙소로 향하였다.

공항으로 가기 전 한동 대학교 국제센터 방문하였다. 한동 대학교 출신 젊은 선교사님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100개의 유치원을 건립하여 유치원을 중심으로 근린생활공동체의 장소로 지역을 회복하려는 작업들을 준비 중이며, 센터를 선교와 교육의 중심기능으로 확장하기 위하여 아시아국제대학/asian international university를 건립할 계획이라는 비전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였다.

그 짧은 여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정말로 놀라웠다. 참혹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은 사회 공동체를 만들고 지역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사목 공동체를 통하여 캄보디아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회복하신다는 것이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사용하여.....

홍기협 (중등1부 교사)

교회생활 이모저모



중등2부 떡볶이 잔치

지난 주일(3일) 중등2부의 교사들은 학생들을 위해 떡볶이잔치를 열었다. 정신여중고 국기계양대 앞에서 열린 이 잔치에는 중등부학생들과 가족들, 주일학교 교사들이 같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 떡볶이 맛을 본 한 성도는 교사들 솜씨가 파는 것보다 훨씬 좋으니 자주 열어야겠다고 말했다.



구역이끄미 개강모임

2006년 하반기 구역 이끄미 개강 모임이 지난 주 수요일에 열렸다. 우동윤 목사는 이끄미 모임 일정과 구역교재를 소개하고 새가족 구역 정착에 구역 식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했다.

여선교회연합예배

2006년도 주님의교회 2학기 여선교회연합예배가 9월 7일 목요일 소예배실에서 3여선교회장 백숙자 권사의 사회, 이주영 집사의 기도, 최은화 집사의 성경봉독, 홍민기목사의 설교로

이어졌다. 예배 후에 각 선교회별로 모임을 갖고 난 후, 지하 식당에 마련된 점심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중보기도 사역팀 전체모임

9월7일 중보기도 사역팀 9월 전체모임이 유치부실에서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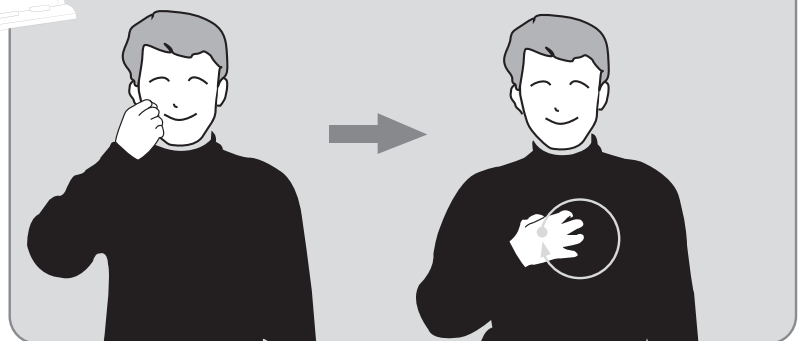
“주 품에 품으소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을 부르며 고백하였다. 중보기도팀 정영환목사님은 엡4:1~4, 계2:4~5 수6:12~13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다. “검손과 온유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오래 참음은 참을 만큼 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참는 것이며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은 모든 검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

로 사랑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다.”는 말씀을 듣고 중보기도자 자신의 회개와 가정의 하나됨 나라와 민족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했다.

또한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세워져 가기를, 새로 시작한 양육 프로그램리더 및 참석자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또한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했다.

그림으로 배우는 생활수화



슬프다 (sad)

오른손 ①②를 붙여 눈 밑에 대고 눈물이 흐르듯 천천히 내린 후, 손을 약간 구부려 가슴에 대고 화살표 방향으로 돌린다.